

88년도 손해보험산업

— 언더라이팅 기능을 중심으로 —



고 순 복
〈한국보험공사 부사장〉

I. 머리말

1970년대 이후 고도의 성장을 기록하여 온 우리나라 경제는 80년대에 들어와 물가안정과 함께 실물재산보다는 저축을 증대시켜 금융자산의 축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왔던 경상수지가 1986년도를 기점으로 흑자로 전환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성장과 안정은 한편 보험시장을 포함한 국내 시장의 대외개방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금융산업면으로는 민간의 창의와 시장경쟁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금융자유화와 국제화가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초기단계에 있기는 하나 자동차문화시대로 돌입하고 있고 개별경제 주체의 입장에서 소득의 증가와 생활개선은 소비의 양적인 문제보다는 질적인 서비스 문제에 관심을 고조시켜 소비자 권익보호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손해보험산업은 그간 국가경제의 고도성장과 선단정책에 의한 보험산업부양책에 힘입어 외형면에서 국민총생산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성장(70년대 40%, 80년대 21%)을 기록하여, 1987년도말 현재 총수입보험료가 1조5천 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면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 본래의 기능인 '언더라이팅' 수준은 그 낙후성을 모면하지 못한

발전방안

채 외형과 내실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88년도의 손해보험 육성방안을 '언더라이팅에 의한 보험경영의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보험환경의 변화와 언더라이팅

1980년대에 들어와 정부는 그동안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안정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제운영의 기조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경제의 자유화를 추구하였다. 1980년 12월 정부로부터 '금융자유화·민영화·국제화'의 기본방향이 발표된 이래,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간의 경쟁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 민영화, 금융업무 영역의 확대 등 일련의 자율화 시책이 추진된 바 있다.

한편, 보험시장은 1983년의 자동차보험의 다원화, 1984년의 금융 풀 해체, 1990년도까지 의무재보험의 연차적 자율화 그리고 금년도에 발표된 화재보험 품의 단계적 해체와 보험상품의 신고제 채택 등으로 금융산업의 재편성과 그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보험시장의 개방에 있어서는 1987년도중 2개 미국계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이미 사업을 개시하였고, 내국인에 의한 4개 지역의 지방 생명

보험회사가 내허가를 받아 그 설립준비에 있는 등 과거 몇십년간 경험하지 못하였던 변화를 일시에 맞고 있는 그러한 상황하에 있다.

이러한 보험환경의 급변속에서 예상될 수 있는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보험자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대경쟁의 심화를 들 수 있겠다. 더욱이, 상품과 가격면의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상황하에서 장기간 요율덤핑이 가능한 대형 보험사 특히 고도의 언더라이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보험자에 의한 시장점유율 확대전략은 시장모집 질서의 차원에서는 물론 재무구조가 취약한 보험자로 하여금 시장경쟁상 비교단위의 위치에서 급기야는 한계기업 또는 탈락기업으로 전락케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이는 실로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심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사전 또는 사후적 감독의 강화와 조기경보체제의 도입활용, 보장기금의 조성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검토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위의 보험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근원적인 방안으로 보험경영적 측면에서 우리 손해보험에 특유한 언더라이팅 위주의 경영을 강조하고자 한다.

Ⅲ. 언더라이팅 중시 정책

보험계약은 법률상 계약당사자간의 의사 합의와 약인의 존재로써 성립하나, 보험경영 기술상으로는 각양각색의 개별위험을 동종동류의 위험군으로 분류, 위험의 동질화를 기하여 장래 손해발생의 예측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언더라이팅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언더라이팅은 일견 어떤 위험을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어떻게 인수할 것인가를 의사결정하는 과정으로 집약되며, 그 구체적인 언더라이팅 업무로서 (1) 손해 발생의 요인분석과 상황평가 (2) 위험의 분류 (3) 인수기준에 부합하는 위험의 선택 (4) 보험가격과 조건의 결정 (5) 재보험처리방안 강구 (6) 통상의 보험계약자 서비스 제공 등이 있고,

그외에도 (1) 보험청약자와의 보험상담을 통한 마케팅 활동 (2) 특수위험의 인수를 위한 상품 디자인과 신규요율의 산출 (3) 보험사고통계(loss control)와 클레임 관리를 위시한 위험관리 서비스 업무를 모두 포괄한다.

또한, 보험사업에 있어서 대수의 법칙은 기본요건이기는 하나 보험자의 입장에서 청약위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는 곤란하다. 물량위주의 무분별한 위험인수정책은 보험사업의 공공성 이전에 영리기업으로서 경영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태롭게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은 요즘과 같은 자율화 및 개방화 시대에 더욱 더 그 심각성이 인정된다. 보험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위험을 선별하거나 아니면 역선택을 당하는” 양자택일적 위치에 있는 특성이 있고 따라서 언더라이팅 기술과 정책이 불비한 보험자는 필연적으로 역선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손해율의 상승으로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하고, 보험금 지급지체 사태가 발생되며, 회사평판의 저하로 양질의 계약자에 의한 부보가 기피되고, 따라서 자금회전에 급급하여 무분별한 인수를 반복하는 악순환만 되풀이하게 할 뿐이다. 요즘과 같이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되고 있고 언더라이팅 기능 수행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던 상품과 요율의 경직성이 위력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러한 한계기업으로의 전락가능성을 우리는 모두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손해보험자에 의한 언더라이팅 기능발휘는 위험상등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자간 보험요율적용의 형평성 유지를 가능케 해준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보험을 통한 전체 국민경제 발전의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보험사업자는 보험수요자에게 적정수준의 가격으로 적정한 보험카바를 제공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바, 전문한 바와 같이 언더라이팅 부재는 보험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태롭게 하여 사회보장기능을 악화시킬 것이다. 반면, 언더라이팅 기능이 손해보험자에 의하여 공히 발휘되는 경

우 인수거절된 보험청약자는 이의 재부보를 위하여, 그리고 양질의 보험계약자는 보다 저렴한 보험료혜택이나 좋은 조건의 보험카바를 제공받기 위하여 자기위험의 관리와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인 바, 이러한 개선노력은 결국 보험자는 물론 전체 국민경제발전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보험인은 언더라이팅에 관한 이론의 새로운 정립과 함께 전문 언더라이터에 의한 손해발생가능성(loss potential)의 분석능력, 신규요율의 산출 능력, 의사결정수(decision tree)를 사용한 대안 평가능력 그리고 위험인수상 언더라이팅 기준설정과 사후평가 능력의 배양과 함께 현행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계약실무 지침서’의 재편, 언더라이팅 부서와 여타부서와의 직제상의 유기적 관계성 여부, 담보력의 확충과 재보험 처리기법의 심층적 연구 그리고 위험관리 기능의 대폭적인 확충 등 언더라이팅 기술개발에 모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IV. 맺는말

흔히 우리는 우리나라의 손해보험시장을 언더라이팅 부재의 시장이라고 말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보험경영상 언더라이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과거 시절에 있지 아니하고 언더라이팅 기능수행을 저해하여 왔던 요인이 하나씩 철폐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와 있다. 따라서 우리 손보업계는 지금이야말로 보험경영철학을 새로이 설정하고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율경쟁의 기저를 언더라이팅에서 찾아 자율화의 열세를 언더라이팅에 의한 보험경영으로 승화시키도록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언더라이팅 기술개발 만이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정도(正道)라고 믿기 때문이다. ㉞